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질뉘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다섯남자의 어머니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1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종은 날	10 종은아침
10 10 제도남아 스페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활판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뉴스와이드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삼어 스페셜 1~2부〉(재)	00 브러보 멋진 인생 20 MBC 정오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결정전 (아이리스)(재)		20 MBC 네트워킹 특선 〈아프리카의 한류 세미를 운동〉	00 SBS12뉴스 30 KBC열린토론회(재)
1 10 토크쇼 (재)	00 KBS 뉴스 10 문/화/산/책 포플러(재)	10 세계는 지금(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 뉴스 10 2013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전
2 20 직언실정	00 콘서트 필드(재) 40 남도지오그래피(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재)	00 MBC 3시 뉴스 10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3 30 제도남아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킹 특선 경남 100경 원전정복	00 최강합체 익스마스터(재) 30 TV유저원	00 뽀뽀 아이즈아 30 키즈 CSI 과학수사대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4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정보 1~2부	20 세상의 모든 여행 〈김우성의 그리이스아 아르헨티나〉	05 슬로우푸드, 슬로우라이프 1년 〈김치 세계를 품다〉
5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웃년이 주의보〉
6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강천)	20 생활 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7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김부의 배란다소	
8 00 가요무대	55 베이스볼 매거진 이호	00 월화드라마 〈상어〉	00 월화특별기획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00 SBS 대기획 〈황금의 제국〉
9 00 명랑해결단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 공감디큐 〈그 곳〉	2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0 10 불멸의 국가대표(2재) ①:20 이영돈PD 논리로 풀다(2재)	00 KBS 글로벌 24 40 소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네트워킹 문화특선 (이철철의 올댓뮤직)	30 해외특별기획드라마 〈초한지〉	20 MBC 뉴스24 40 소포츠 다이러리 55 MBC가요베스트 ①:55 버비킴·이후마의 TV 예술무대	20 나이트라인 ①:10 SBS골프



이상윤 (왼쪽)과 문근영 (오른쪽)이 출연하는 MBC '불의 여신 정이'의 모습이다.

### 조선 최초 여성 사기장 (沙器匠)

## 불타는 사랑과 예술혼

### MBC '불의 여신 정이' 오늘 밤 10시 첫 방송

1200℃ 열기로 완성되는 사기의 뜨거움만큼 치열한 예술혼을 소유했던 500년 전 한 여성의 이야기가 울림을 시청자를 찾아온다.

MBC 새 월화극 '불의 여신 정이'(박성수 연출, 권순규 극본)는 16세기 끝자락을 살다간 조선시대 최초 여성 사기장 '유정'의 삶을 다룬다.

27일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불의 여신 정이' 제작발표회에서 만난 주축 배우들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불의 여신 정이'는 16세기 말 조선시대 왕실 도자기 제작소인 '분원(分院)'을 배경으로 '유정'(문근영 분)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판전 사극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가면서 훗날 일본 도자기의 어머니로 추앙받게 되는 실존인물 '백파선(白髮仙)'이 유정의 모델이다.

유정의 도자기에 대한 열정이 드라마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청년' 광해군(이상윤 분)과의 사랑이다.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도예 라이벌 간의 경쟁, 왕실 권력 다툼 등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든다.

문근영은 2008년 SBS '바람의 화원'에서 천재 남장 화가 신윤복을 연기한 지 5년 만에 다시 출연한 사극에서 여성 도공으로 변신한다.

문근영은 "대본이 매우 재미있었고 사극을 정말 하고 싶었다"며 "좋은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참여한 계기를 밝혔다.

신윤복과 비슷한 캐릭터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신윤복이 많은 것을 감추는 상태였다면 유정은 아품조자 받게 드러난다. 따라서 그녀의 예술에 대한 열정도 달리 표현될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올해 최고 인기 드라마인 '내 딸 서영이'에서 서영이의 남편 우재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오른 이상윤이 유정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광해군으로 분한다.

이상윤은 "드라마의 광해는 왕자에서 왕세자가 되는 단계"라며 "젊은 시절 광해군의 정이와의 로맨스가 드라마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 연기가 문근영 씨여서 작품이 더 기대됐다"고도 말했다.

## KBS '1박2일' 300회 맞아... "새로운 여행 시작"

KBS 2TV 야외 버라이어티 '해피선데이 - 1박2일<사진>'이 30일 300회를 맞았다.

지난 2007년 8월 강호동·이수근·은지원·노홍철·지상렬·김종민을 원년 멤버로 삼아 흥분 영등포 편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은 방송가에 '야외 버라이어티'를 불러 일으키며 일요일 저녁 시간대 강자로 군림해왔다.

'1박2일'은 강호동의 세금 과소 납부 의혹, MC들의 병역 회피 의혹 논란 등으로 멤버를 교체하는 등 우려폭탄도 겪었지만, 지난 3월 시즌 2의 맞을 울려 현재 유해진·임태웅·이수근·차태현·성시경·김종민·주원일이 이끌고 있다.

프로그램을 거쳐 간 이들 가운데 김C·이승기 등은 숨겨진 예능감을 뽐내며 버라이어티계의 '핫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1박2일'은 이전까지 주로 실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TV 예능을 '야외'로 끌어낸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초대 메인 MC를 맡은 강호동은 이를 통해 '야생' 혹은 '야외' 예능을 자신의 주특기로 삼아 우리나라 간판 방송인으로 섰다.

쉽사리 접하지 못한 전국 각지의 명소를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의 메인 콘셉트는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전파를 탄 지역은 이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등 하나의 '현상'을 이루기도 했다.

시청자 투여 특집, 재외동포 특집, 주한 외국인 특집 등 다양한 시청 계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집은 자칭 '여행'이라는 한 가지 콘셉트에 매몰될 뻔한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 방송사와 포맷 수출 협약을 체결해 '예능 한류'에도 힘을 보탰다.

'1박2일'은 39.3%(닐스코리아·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한 지난 2010년 3월 강호동 교통편을 정점으로 늘 20%를 훌쩍 뛰어넘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펼쳤다.



## EBS

06:00 건강 아침	09:30 캐니멀	14:30 푸리 상상여행	18:45 미앤미 로보
06:10 한국기행 (지리산 돌레길)	09:40 토크쇼 이야기	15:00 꼬마기사 마이크로	19:00 EBS 뉴스
06:30 나의 성공비결	09:55 지구를 지켜라	15:10 공룡짱 꼬리	19:25 지식채널(재)
07:00 곤	10:10 세계대미팅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9:30 달라졌어요
07:15 미앤미로봇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미야의 모험	20:20 요리비결
07:30 마이의 모험	11:20 부모	16:00 땀방울 유치원 1~2(재)	20:50 세계대미팅 〈규슈〉
07:45 뽀뽀뽀 뽀로로	11:20 부모	16:20 캐니멀	21:30 한국기행 (남해)
08:00 땀방울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뽀뽀뽀 뽀로로(재)	21:50 EBS 다크프린트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인	12:10 EBS 다크프린트	16:45 숲 속 친구 피파블라(재)	〈창시특집-퍼펙트 베이비〉
08:35 로보카 폴리	12:10 EBS 다크프린트	17:00 로보카 폴리(재)	22:45 하늘에서 본 한반도
08:50 숲 속 친구 피파블라	13:05 EBS 스페이스 공감 1	17:25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해양레저도시의 꿈, 화성〉
09:00 방귀대장 뽀뽀이	14:05 영어유치원 요! 기가카바	17:4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4	23:15 다크10+
09:15 코로퐁2		18:30 곤	24:05 지구에서 달까지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b>子</b> 36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보자. 48년생 상호간에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0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깨어들면 그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다. 84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부딪쳐야겠다. <b>행운의 숫자 : 68, 74</b></p> <p><b>丑</b> 37년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49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생각하지 않아서 몹시 답답할 수다. 61년생 일정하게 되풀이 되다가 사라지리라. 73년생 마음껏 즐겨도 된다. 85년생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b>행운의 숫자 : 01, 53</b></p> <p><b>寅</b> 38년생 집중한 만큼에 비례한 성과가 있겠다. 50년생 주저하다가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62년생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이니 모두 챙겨 두도록 하라. 74년생 희망한 해가 서서히 솟아 오르고 있는 이치다. <b>행운의 숫자 : 13, 09</b></p> <p><b>卯</b> 39년생 간발의 차이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형상이다. 51년생 호평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63년생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다. 75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겠다. <b>행운의 숫자 : 21, 27</b></p> <p><b>辰</b> 40년생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52년생 상대는 힛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64년생 오해불망 하던 것을 마침내 이루어라. 76년생 진정한 성공자는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이이니라. <b>행운의 숫자 : 45, 37</b></p> <p><b>巳</b> 41년생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관내됐다. 53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든 법이다. 65년생 천천히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77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번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b>행운의 숫자 : 42, 05</b></p>	<p><b>午</b> 42년생 팽목적으로 믿었다가 후회하는 수가 있다. 54년생 도약 하고 있는 단계이니 조금만 더 힘써 바라. 66년생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이 가장 낫다. 78년생 달린 삼키고 쓰면 뱉어 내는 이가 보인다. <b>행운의 숫자 : 23, 34</b></p> <p><b>未</b> 43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55년생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니 적극 추진해도 좋다. 67년생 가상이 실제의 상황으로 전개 되리라. 79년생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이 서로 편하고 좋다. <b>행운의 숫자 : 49, 58</b></p> <p><b>申</b> 44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을 알라. 56년생 전혀 기망성이 없으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68년생 시작 되자마자 곧 종결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80년생 실행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b>행운의 숫자 : 62, 75</b></p> <p><b>酉</b> 45년생 변화하는 정황까지 감응해야 한다. 57년생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발전의 폭을 넓힐 수 있다. 69년생 일회일비 하다가 종국적으로 안정 계도에 진입 하리라. 81년생 가볍게 이뤄질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b>행운의 숫자 : 80, 15</b></p> <p><b>戌</b> 46년생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빨리 버리는 것이 옳다. 58년생 곧 신호가 울 것이니 기다리지만 있으면 되느니라. 70년생 빛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모습이다. 82년생 잘만 활용하면 여러 모로 유익하리라. <b>행운의 숫자 : 30, 86</b></p> <p><b>亥</b> 47년생 여러 사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왜곡 되어질 수도 있다. 59년생 원인은 따로 있느니라. 71년생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마음을 써주는 이가 보인다. 83년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b>행운의 숫자 : 40, 64</b></p>
---------------------------------------------------------------------------------------------------------------------------------------------------------------------------------------------------------------------------------------------------------------------------------------------------------------------------------------------------------------------------------------------------------------------------------------------------------------------------------------------------------------------------------------------------------------------------------------------------------------------------------------------------------------------------------------------------------------------------------------------------------------------------------------------------------------------------------------------------------------------------------------------------------------------------------------------------------------------------	-------------------------------------------------------------------------------------------------------------------------------------------------------------------------------------------------------------------------------------------------------------------------------------------------------------------------------------------------------------------------------------------------------------------------------------------------------------------------------------------------------------------------------------------------------------------------------------------------------------------------------------------------------------------------------------------------------------------------------------------------------------------------------------------------------------------------------------------------------------------------------------------------------------------------------------------------------------------------

## TV 하이라이트

###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TV·오후 5시35분) =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아이들센터가 유망하다.

때문에 센터는 에어로빅, 축구교실, 도자기 수업, 원아민 영어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에어로빅은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 자존감 향상을 위해 시작한 에어로빅 수업에서 재능과 소질을 발견한 아이들은 경험 삼아 출전한 전국 에어로빅 대회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

계대로 된 에어로빅 의상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 희망TV SBS와 굿네이버스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기 위해 나섰다.

### '선풍기 아줌마'의 눈물겨운 사연

그때 그 사람(채널A TV·오후 8시30분) = 과거 많은 사랑을 놀라게 했던 '선풍기 아줌마'의 현재 모습이 공개된다. 2004년 불법 성형술 부작용으로 얼굴이 2배 이상 커져 버린 한혜경씨를 사람들은 '선풍기 아줌마'라 불렀다. 특히 방송에 공개된 선풍기 아줌마의 아름다웠던 과거 사진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크고 작은 재건 수술만 20차례를 받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는 무조건 피하고 모자를 꼭 쓰고 다녀야했다. 잠잘 때는 다 감기지 않았고 발음마저 부정확한 상태. 세상 밖으로 나온 듯했던 그녀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간 이유를 알아본다.

또한 한씨가 일본에서 밤무대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자신에게 불법 시술을 해줬던 시술자를 찾아 나서서 등 그의 일본 활동시절 이야기도 공개된다.

### 천혜 보물 가득한 푸른섬, 남해

한국기행 '남해'(EBS TV·밤 9시30분) = 남쪽 푸른 바다를 품은 커다란 섬.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남해는 1973년 경남 하동과 남해를 잇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 남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누구나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섬이 됐다. 드넓은 바다엔 은빛 밀치기 생동하고 초록빛 눈이 굽이굽이 마을을 감싸며 알차한 마을향이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는 천혜의 보물이 가득한 그곳 남해로 초대한다.

1부 '금산의 약속' 편에서는 금산 정상(705m) 부근에 자리한 100년 넘는 금산산장에서 약속 하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대를 이어 산장을 지키고 있는 이장순씨와 "한 달에 한 번씩 산장에 꼭 오겠다"고 한 김자아의 사연이 소개된다. 2부 '은빛 바다의 꿈' 편에서는 미조항 밀치잡이 이야기가 펼쳐진다.